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마태 1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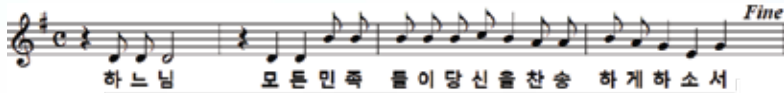
제1독서

이사 56,1.6-7
〈나는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로마 11,13-15.29-32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5,21-28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340] 봉헌
- 성체성가: [504] 우리와 함께 주여 [172] 그리스도의 영혼
- 파견성가: [23] 온 세상 다스리심

제1독서

이사야
56.1,6-7

나는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

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⁶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⁷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제2독서

로마서
11.13-15.29-3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¹³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¹⁴ 그것은 내가 내 살붙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¹⁵ 그들이 배적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²⁹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³⁰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³¹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³²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복음

마태오
15.21-28

아, 여인이!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²¹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²²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²³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²⁴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²⁵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²⁶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²⁷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⁸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이!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묵상

이사야 예언자는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하고 예언하며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퍼졌다는 역설적인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교도 지역인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가 어떤 가나안 부인의 절박한 소원을 듣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통해서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였으며 예수님마저 그 여인의 인내심과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방인 여인은 구세주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딸의 치유를 끈질기게 간청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식탁의 빵 부스러기 같은 은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커다란 믿음으로 딸이 악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보편적 자비와 사랑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몸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의 믿음은 마귀 들린 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속박이 클수록 좌절하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갈구하게 됩니다. 티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선택하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온갖 비하와 소외감도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고통을 이겨 내게 합니다. 믿음은 온갖 속박의 시슬을 끊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류한영 베드로 신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페루 뿌깔파로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어 ‘가서 부딪쳐보자!’는 생각으로 다녀왔지만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미리미리 현지 사정도 듣고, 만약에 있을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여러 번 만나 차곡차곡 준비했음에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조금은 힘들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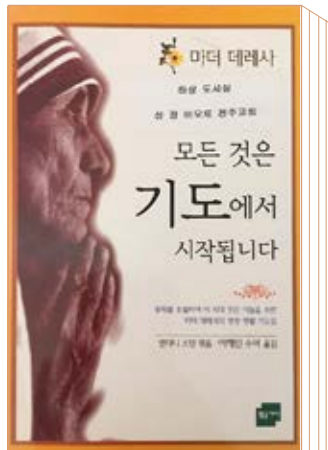
이번 선교를 돌아보며 “어떻게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준비, 사람들의 열정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있었기에 좋은 선교 여행이 될 수 있었다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교를 떠난 사람들도 매일의 미사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현지인들을 만났고, 성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에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삶 안에서, 특히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책 내용을 소개하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빈자의 성녀’, ‘하느님의 몽당연필’이라고도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시며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실천을 더 강조하셨을 법한데 오히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루는 회의 중에 여러 수녀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수녀님, 최근 들어 일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돌봐야 할 사람들이 천막이 넘치도록 몰려와 하루 종일 일만해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아침의 기도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그러자 수녀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할 일은 많고 일손이 부족한가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조정해야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훗날 동료 수녀님들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묘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수녀님께서서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말들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앞에서는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수녀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차분히 기도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마더 테레사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엔터니 스텐 엮음
이해인 수녀 옮김

황금가지 출판

삶이 너무도 바쁘다며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훼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처럼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삶 안에서 하느님과 늘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꼭 성당 안이나 기도실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 하십시오. 하느님께 어린이와 같이 다가가십시오. ‘오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느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고, 하루의 끝을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 하루 동안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 종알종알 떠들며 놀듯이 아버지 하느님과 늘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 안에서 늘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속에 찬 하느님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것을 내어주며 기쁜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소공동체 모임 소식

지난 8월 12일(토)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태 복음(14,22-33)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구역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을 모신 가운데 안상용 형제덕 축복식을 겸한 8월 모임에는 31명의 많은 구역식구들이 모여 말씀 나누기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구역

강명수 베드로 형제덕에서 7가정 11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복음 묵상 중에 '확고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엔나 구역 1반

6세대 8명의 구역식구들이 중화원에서 모여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엔나 구역 2반

김돈현 미카엘/요안나 부부덕에서 8가정 14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영적 게으름, 기도, 그리고 봉사활동 등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6년 동안 페루 뿌갈파 선교에 참여하는 김돈현 미카엘 형제의 선교 활동 체험을 들었으며, 최평란 데레사 자매에게 구역부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드브릿지 구역

권혁춘 요셉/권정미 안나 부부덕에서 8가정 13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말씀 묵상에 이어 장터에서 수고한 김동표 로말도 형제에게 본당 신부님을 대신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애난데일 구역 3반

김형건 미카엘 형제덕에서 7가정 13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여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반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허약한 갈대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토양에서 자라고 있음에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친교 시간에는 김형건 형제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홍삼계탕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꼬미시움 월례회의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스텨파노) 월례회의가 8월 13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있었다. 47명의 꼬미시움 및 꾸리아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월례회의는 묵주 기도에 이어 간부 임명 승인, 사업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지 사항으로 9월 17일(일)에 있을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 가두선교 강화 방안 및 DC의 가톨릭 대학에서 있을 2박 3일의 봉쇄피정(2018년 7월)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8월 단체장 회의

8월 단체장 회의가 지난 13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용현(요셉) 사도 회장은 회의에 앞서 각 단체장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교만해지지 말자"고 당부했다. 각 단체별 행사 결과 및 계획 발표에 이어 루카회의 강세원(바오로) 회장은 "그동안 조용했던 루카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여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김인태(골롬바노) 부장은 "매년 9월에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 만큼 단체장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천주교를 알립니다" 가두선교 열기



주님의 종 마리아



영광의 어머니



증거자의 모후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가두선교 열기가 말북 더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꼬미시움 직할의 영광의 어머니 뵘레시디움 (단장 정우석 빌립보)과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정우진 미카엘) 산하 주님의 종 마리아 뵘레시디움 (단장 박해정 율리아)과 증거자의 모후 뵘레시디움 (단장 민인숙 데레사) 단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8월 6일과 9일, 그리고 13일에 각각 2명, 4명, 그리고 5명의 단원들이 웨어팩스 슈퍼 마트와 센터빌 마트에서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돌리며 가두선교를 펼쳤다.

제74차 이동복부 ME부부주말

(미주 한인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부부의 행복을 도와주는 주말입니다."
"여러분을 신혼으로 초대합니다."

• 대상 : 부부들
• 일시 : 2017년 9월 2일 (토) 오후 7시- 9월 4일 (월) 오후 5시
•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문의 및 신청 : 각 본당 ME대표부 혹은, 신 세바스찬, 세라피나 부부
TEL (646) 772-3024 / (516) 996-9038
E-Mail: Sungho.shin@yahoo.com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7

"Come and see" - John 1:38

Workshops are led by Korean priests and sisters in both Korean and English to help you grow a deeper faith through a proper understanding of vocations.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Saturday, Sep 9, 2017
St. Paul Chung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Questions: Vocations Committee 703-403-1185

■ 2:30pm - 2:45pm Registration
■ 3:00pm - 6:00pm Sessions
■ 6:00pm - 7:00pm Dinner
■ 7:30pm Vigil Mass

This event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Arlington diocesan organizations:
- Office of Vocations
-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
- St. Paul Chung

Fr. Inhyun Park 백인현 신부님
Fr. Wonyoung Seong 송영웅 신부님
Fr. J.D. Jaffe 제이디 신부님
Fr. Augustine Bank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Sr. Theresa Lee 테레사 신부님
Fr. Martin Chul 최 목사님
Sr. Jemma Hong 홍 정씨 신부님
Fr. Marshall Kim 마셜 신부님

천주교 성령 미로로 영당
St. Paul, Orange Catholic Center
Email: mcm@arlingtondiocese.org
Twitter: @ccdcultures

2017 CCD Summer Camp

This was the most unforgettable camp that I have gone to with the CCD kids. They were shy at first, but once we got to the camping site, the shyness disappeared, and all of the kids became one.

At first, we were worried so much because there was a chance for a shower of rain, but I believe that God has given us beautiful weather for the kids to have a wonderful time during camp. Also with the help from other kids, the first timers had no problem enjoying the camp.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kid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camp for a great time together, and I will miss every single second I spent with them at the camp.

- Camp Counselor, **Chris Suh**



Gryffindor



Slytherin



Hufflepuff



Ravenclaw



Bishop Burbidge thanks altar servers for their dedication at annual picnic



In gratitude for their year-round service in the Diocese of Arlington, the boys and girls were able to socialize with seminarians, priests and Arlington Bishop Michael F. Burbidge.

August 10th, 2017 (Catholic Herald)

ANNOUNCEMENT

1. 2017-2018 Sunday School Registration

- **When** : Sundays, Aug. 6th-Aug. 27th (after 10am & 11:40am Mass)
- **Where** : Hasang Building Lobby
- **Fee** : 1 child/family \$80
2 children/family \$150
3 children & more/family \$200 (checks or cash)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2. Sunday School Assistant Teacher needed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spc15.re.admyc@gmail.com.

성원경 보좌 신부님 송별 미사

☆ 일시: 9월 10일 오전 10시 미사

그동안 따뜻한 사목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원경 신부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 부임지(원주교구 청소년 교육과 차장)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마음모아 기도드립니다.

1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전 11:30 (B-3,4)

2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전 11:30 (A-1,2,3,4)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8월 20일(일) 오후 1시(하상관 B-4,5)

4 베드로회 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후 1시(A-1,2)

5 본당 봉사부 지침(안보, 안전) 관련 세미나

· 일시: 8월 20일(일) 오전 11:30 (B-1,2)

· 문의: 허진 (703) 376-1372

6 제76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찰고

- 종합 교리 : 8월 22일(화) / 8월 23일(수) 오후 8시, 하상관
- 찰고 : 8월 24일(목) 오후 8시, 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 8월 25일(금) 오후 7:30 미사 중
- 환영식 : 8월 27일(일) 오전 11:30 (A-1,2)

7 제77차 예비자 입교식

- 일시: 9월 3일(일)
- 접수: 매주일 8시, 10시 미사 후(선교부 테이블, 친교실)

8 2017 - 2018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8월 27일까지 주일 오전 10시, 11시 40분 미사 전·후(하상관 로비)

9 주일학교(CCD) 보조교사 모집

- 2017 - 2018년도 주일학교 보조교사 약간 명을 모집합니다.
- 관심있으신분은 주일학교 또는 성당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10 불우이웃돕기 5K 뛰기/걷기(복지부 주최)

- 일시: 9월 16일(토) 오전 7:30 - 10시
- 장소: Greenbrier Park, Fairfax
- 신청: 8월 27일(일) - 9월 10일(일) 미사 후 친교실
- 신청비: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4명): \$40 (도내이셔도 받습니다.)
-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진호 다니엘 부회장 (703) 300-5420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20일(일)	연중 제20주일	안나회(오전 11:30, A-1,2,3,4), 하상회(오전 11:30, B-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B-4,5), 베드로회 정기모임(오후 1시, B-1), 봉사부 세미나(오전 11:30, B-1,2), 성서통독반(오전 11:50, B-1,2)
21일(월)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2일(화)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76차 예비자종합교리(오후 8시, 하상관),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바오로기회부 모임(오후 8시), 성령기도회(오후 8시)
23일(수)	연중 제20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예비자 종합교리(오후 8시, 하상관),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24일(목)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76차 예비자 찰고(오후 8시, 하상관)
25일(금)	연중 제20주간	76차 영세식(미사 중), CLC모임(오후 8시), 바오로 자매 모임(오후 8시)
26일(토)	연중 제20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혼배미사(오후 12시, 성당)
27일(일)	연중 제21주일	

11 2017 - 2018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 2017 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등록: 9월 3일까지 / 11:40 미사 후 하상관
- 입학 대상: 유치부 - 12학년
- 문의: 이정철 교장 (571) 215-0479

12 2017년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 - 2017년 12월 3일
- 등록: 2017년 8월 20일 - 9월 3일까지(8시, 10시 미사후, 친교실)
- 수강 과목: 컴퓨터 기초, 컴퓨터 중급(인터넷, 워드), 컴퓨터 고급(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동양화반(수묵화), 미술(수채화, 아크릴), 시민권 준비반, 문예창작교실(시), 생활영어(회화), 수지요법(초급, 중급), 합창교실, 한국무용(초급, 중급), 장구반(초급, 중급), 키보드교실(Key Board), 기타(Guitar) 교실(초급, 중급), 스트레칭 요가, 라인댄스
- 개강일: 9월 5일(화) 오전 9:20
- 대상: 전 교우 및 일반인 20세 이상 성인(남,여)
- 등록금: \$50(점심 제공)

13 하상 성인학교 봉사자(점심) 모집

- 하상 성인학교에서 점심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성당 사무실(703) 968-3010, 김명희 율리어나 교장(703) 217-2775

14 신입 본당 봉사부원 모집

- 접수: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K of C 테이블)
- 문의: 허진 (703) 376-1372

15 요한회 정기 모임(60대 형제 자매)

- 일시: 8월 27일(일) 오전 11:30(B-3)

16 복사단 모임

- 일시: 8월 27일(일) 12:40(B-1,2)

17 KofC 모임

- 일시: 8월 27일(일) 11:30(나눔터)

18 하상 성인학교 강사회의

- 일시: 8월 27일(일) 11:30(A-3)
- 성인학교 강사님들께선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9 2018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

- 2018년 본당 달력에 실릴 광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광고 가격 \$600)

20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여행

- 일시: 9월 2일(토) - 9월 4일(월) Labor Day Weekend
-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NJ
- 문의: 김아놀드 / 레지오 부부 (703) 477-2446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20주간: 민수 11-15/ 마르코 7장

* 여름 휴가중 *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8월 24일 (목) 오후 5:00-6:00
- 8월 25일 (금) 오후 8:00-9:00
- 8월 27일 (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뉴스
- PBC 특집 임파라 한평생: 원로 사제들의 일생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특집 / 전 제주교구장 김창렬 바오로 주교 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일)

주일헌금	\$ 7,413.00
교무금	\$ 8,670.00
교무금(신용카드)	\$ 2,800.00
특별헌금	\$ 400.00
2차 헌금	\$ 0.00
합계	\$ 19,28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대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안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테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영식(토마스),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철(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김영은 씨 자: 김지현(토마스 아퀴나스)

◆ 이완열 씨 녀: 이재은(아네스)

· 일시: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12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력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 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터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 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Kwon's Champion School 종합무술 (Before /After/Evening) 703-785-3845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서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호현 (요셉)